

황대인 “대인답게 자신있게”



황대인

긴 슬럼프 마침표 찍는 홈런
KIA ‘타점 머신’으로 돌아와
“욕심 버리고 힘 빼고 치겠다”



부담감을 담장 밖으로 날려버린 황대인이 KIA의 ‘타점 머신’으로 돌아왔다.

황대인은 지난 28일 두산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스티어링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7월 24일 롯데전 이후 한 달 여 만에 기록된 황대인의 시즌 11호 포이저 긴 슬럼프에 마침표를 찍는 홈런이었다.

황대인은 전반기에 소크리테스와 ‘황소 듀오’를 구성하면서 KIA 타격을 이끌었다. 5월 한 달 동안에 만 리그에서 가장 많은 31타점을 쓸어 담기도 했다. 하지만 황대인은 침체의 8월을 보냈다.

홈런이 나온 28일 경기를 제외한 8월 18경기에서 10차례 안타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18경기의 타율은 0.179(67타수 12안타), 6타점에 그쳤다. 또 15차례 삼진으로 물러났고, 4개의 병살타도 기록했다.

타점 기회에서 황대인이 침묵하면서 팀도 힘겨운 8월을 보냈다. 그만큼 황대인의 상승세는 KIA 입장에서 반갑다.

황대인은 지난 24일 키움전에서 모처럼 4안타 경기를 하면서 위닝업을 했다. 이후 3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정타가 나오는 등 앞선 부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담장까지 넘기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황대인은 “모든 부분이 다 힘들었다. 다음 날에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에 가서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했다. 슬럼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반기에 타석에서 생각이 많았다. 투수랑 싸워야 하는데 나와 싸우고 있었다. 나

자신에게 실망 많이 했다”고 돌아왔다.

“외야 플레이를 치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섰던 황대인은 기다렸던 홈런을 만들어냈다. 홈런을 치고 도 표정은 밝지 않았지만 자신감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황대인은 “홈런은 쳤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친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전에 안 좋았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했다”며 “오랜 기간 홈런이 안 나오고 외야로 나가는 타구도 없었다. 외야로 치려고 하면 땅볼 나오고 병살타가 되곤 했다”고 길었던 부진을 이야기했다.

‘욕심’을 부린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황대인은 ‘힘 빼기’로 탈출구를 찾았다.

황대인은 “후반기 들어서 솔직히 타점에 대한 욕심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안 된 것 같다. 내가 뭐 되는 선수도 아닌데 굳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욕심을 내고 있었다”며 “꼭 쳐야지 하면 안 됐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다. 야구가 진짜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폼을 조금 바꿨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힘을 빼려고 폼을 바꿨다. 솔직히 폼을 많이 바꾸면 안 좋다. 코치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면서 연습해야 할 것 같다”며 “힘 빼는 법을 배우고 있다. 힘 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다”고 웃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반전의 계기를 찾은 만큼 황대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타석에 나설 생각이다.

황대인은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못 치면 팀이 졌다. 내가 안 되다 보니까 팀 흐름이 항상 끊기고 뒤에 선수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것 같다. 올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힘들지만 그래도 야구장 나오는 게 재미있다.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게 타석에 들어가겠다”며 “올 시즌 목표가 80타점이었는데 지금 79타점이다. 80타점 달성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81타점이다. 그다음 82타점으로 점차 목표를 높여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내일 새벽 이 세리머니 볼 수 있을까?



손흥민 EPL 웨스트햄전 출전 시즌 첫 골 ‘명예회복’ 나선다

시즌 초반 잠잠한 손흥민(30·토트넘)이 시즌 마수걸이 골로 ‘명예회복’에 나선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9월 1일 오전 3시 45분(이하 한국시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시즌 개막 후 4경기에서 3승 1무를 거두며 일찌감치 상위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현재 순위는 3위다.

최근 울버햄프턴과 노팅엄 포리스트를 각각 1-0, 2-0으로 꺾고 연승을 달린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려 한다.

이번 라운드에서 마주할 웨스트햄은 개막 후 3연패에 빠졌다가 직전 애스턴 빌라전에서 1-0 승리를 거둬 16위(승점 3)에 자리하고 있다.

토트넘이 초반 기세를 유지하려면 지난 시즌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의 부활이 필요하다. 해리 케인이 4골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가운데, 그와 함께 ‘원투 펀치’를 담당하는 손흥민은 리그 4경기째 침묵하고 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 1라운드에서 도움 1개를 기록한 뒤로는 공격포인트를 쌓지 못했다.

워낙 ‘몰아치기’에 강한 스타일이지만, 득점왕의 첫 골이 늦어지자 우려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상대 팀들이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면서 득점 기회를 살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직전 노팅엄전에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은 74분

을 뛰며 두 차례 슈팅을 시도했으나 마무리는 아쉬웠다.

또 영국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그는 이날 26번의 볼 터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골키퍼를 포함해 선발 출전한 두 팀의 22명 중 가장 적은 횟수다.

결국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빼고 히샤를리송을 투입했다. 손흥민은 교체 지시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교체로 들어간 히샤를리송은 케인의 골을 도우며 팀의 2-0 승리에 힘을 보탤다.

케인과 데얀 쿨루세비치, 여기에 새로 영입한 히샤를리송까지 활약을 펼치면서 손흥민의 부진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향해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하루빨리 골 침묵을 깨고 믿음에 보답하는 게 손흥민의 숙제다.

손흥민은 웨스트햄과 그간 15차례 만나 7골 7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0라운드 대결에선 멀티골을 터트려 토트넘의 3-1 승리를 이끈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다.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서 뛰는 황희찬(26)도 득점이 간절한 건 마찬가지다.

울버햄프턴은 내달 1일 3시 30분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승격팀 본머스와 맞붙는다. 황희찬 역시 1라운드에서 도움 1개를 기록한 뒤 공격 포인트가 없다.

리즈 유나이티드와 애버턴의 영입 후보로 거론되는 그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며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고, 28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1-1 무)에선 클리어링 실수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세영, 마라톤 클래식서 시즌 첫 승 도전

LPGA 144명 선수 출전 3년 전 22연타파로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김세영(29)이 시즌 첫 승과 함께 3년 만의 마라톤 클래식 정상 탈환을 노린다.

김세영은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살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클럽(파71-6598야드)에서 열리는 LPGA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아직 우승이 없는 김세영은 3년 전 이 대회서 무려 22연타파를 기록, 2위 렉시 토포스(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020년 10월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2년 가까이 정상에 오르지 못한 김세영으로선 이번 대회가 부진을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세영과 함께 지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28)와 4월 롯데 챔피언십 우승자 김효주 등 총 17명의 한국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김세영

2017년 이 대회서 우승한 김인경(34)과 2012년 우승자 유소연(32), 2010년 우승자 최나연(35)도 대회 두 번째 우승을 위해 출전한다.

마라톤 클래식은 특히 한국 선수들이 그동안 강세를 보인 대회다.

1998년 박세리(45)가 우승한 이후 지난해까지 대회가 열리지 않은 2011년을 제외한 23년간 한

국 국적의 선수가 우승한 횟수가 절반이 넘는 12번이나 된다.

교포 선수인 리디아 고(뉴질랜드)의 2014년, 2016년 우승과 대니엘 강(미국)의 2020년 우승까지 더하면 그 횟수는 더 올라간다.

한국 선수들의 가장 강력한 우승 라이벌은 지난 달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셔널에서 시즌 3번째 우승을 기록한 제니퍼 켈츠(미국)다.

켈츠는 올해 4월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고, 6월 마이어 클래식에 이어 다우 그레이트 레이크스 베이 인비테이셔널까지 석권하며 이번 시즌 최초로 3승에 오른 선수가 됐다.

또 지난달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브룩 헨더슨(캐나다)도 출전에 시즌 세 번째 우승을 노린다.

지난해 대회 우승자인 하타오카 나사(일본)도 이번 대회서 시즌 두 번째 우승과 대회 2연패를 향해 도전한다.

총 144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순위를 가리며, 2라운드 이후 상위 70위까지만 3라운드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김기정·김사랑 일본 오픈서 ‘파란’ 개인 자격 출전 … 남자복식 16강전에 올라

국가대표 허광희 등은 탈락

지난 4월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코리야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 참가해 우승까지 거뒀던 김기정(32·당진시청)-김사랑(33·밀양시청)이 일본 오픈에서 또다시 파란을 예고했다.

김기정-김사랑은 3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2 일본 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복식 32강전에서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던-애덤 홀을 2-1(21-15 19-21 21-14)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김기정-김사랑은 2016 리우 올림픽에 대표팀으로 출전해 8강에 오른 바 있는 베테랑 남자복식조 선수들이다.

올림픽 이후엔 대표팀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세계 랭킹 82에 불과한 김기정-김사랑은 자신들보다 랭킹이 50계단이나 높은 세계 30위 스코틀랜드 선수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1세트 15-12에서 3연속 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3점씩을 주고받아 세트를 따냈다.

2세트에선 17-16으로 앞서다가 3연속 실점을 해 상대에 역전 세트 패배를 당했지만, 마지막 3세트에서 다시 경기를 주도했다.

7-6에서 세 차례 연속 득점으로 14-8로 점수 차를 벌린 뒤 이후 수비 위주의 플레이로 실점을 4점으로 막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반면 대표팀 소속인 남자복식 허광희(27)와 여자복식 이소희(28)-신승찬(28)은 32강전에서 탈락했다.

대표팀은 이날 저녁 8시께 백하나(22)-이유림(22)이 여자복식 32강전에 출전한다.

대회 2일 차인 31일에는 여자단식 안세영(20)·김가는(24), 여자복식 김소영(30)-공희용(26)·정나은(22)-김혜정(24), 남자복식 최솔규(27)-김원호(23)·강민혁(23)-서승재(25), 혼합복식 김원호-정나은 등이 32강전에 나선다. /연합뉴스

광주FC 이민기·아론 K리그2 35R 베스트 11

광주FC의 이민기와 아론이 K리그2 35라운드 베스트 11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35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광주에서는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1-0, 무실점 승리를 이끈 이민기와 아론이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지난 2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부산과의 경기에서 전반 33분 기록된 엄지성의 페널티킥골을 지키면서 승리로 11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광주는 상대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위에도 추가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후반 막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민기와 아론의 풀타임 활약으로 부산의 공세를 막았다.

한편 35라운드 MVP는 충남아산FC의 유강현에게 돌아갔다. 베스트 매치는 지난 27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 부천FC의 경기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